



동부 브랜든 보우만(가운데)이 17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KCC와의 원정경기에서 골밑을 돌파한 뒤 외곽으로 패스를 하고 있다. 전주 | 연합뉴스

골킥팅이 보우만, 복덩이로 26점 4R...동부 첫 승 덩크!

변현수 23점 등 맹활약...LG는 오리온스 잡아



퇴출위기에 놓인 브랜든 보우만(28·201cm)이 동부에 시즌 첫 승을 안겼다.

보우만은 17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2012~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 KCC와의 원정경기에서 26점·4리바운드·3어시스트·3스틸의 올라운드 플레이로 팀의 70-53 승리를 이끌었다. 반면 KCC는 개막 3연패.

시즌 전부터 퇴출설에 시달렸던 보우만은 개막 2연전에서 평균 9.5점·4.0리바운드에 그쳤다. 여기에 팀도 2연패를 당했다. 이에 강동희 동부 감독은 한국농구연맹(KBL)에 줄리안 샌슬리(30·202cm)에 대한 가승인을 요청했다. 교체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움직임에 자극 받았는지 보우만은 적극적 플레이로 KCC를 무너트렸다. 특히 3쿼터 중반 연속해서 KCC 가드들의 볼을 가로채 덩크슛을 작렬시키며 경기 흐름을 동부로 이끌었다. 또 김주성, 이승준과 콤비 플레이까지 선보이며 적응력을 높여가는 모습을 과시했다.

고양에서 펼쳐진 경기에선 LG가 오리온스를 79-58로 누르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LG 변현수는 23점을 올리는 동시에 수비에서 오리온스 전대포를 봉쇄해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김연경 "FIVB의 결정 따를 수 없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듯



김연경(24·사진)이 자신을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규정한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가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16일 국내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뜻대로 안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18일 귀국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최재천, 정세균 의원 측은 1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편진 | 강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트위터 @mikkang



'참말로 수고 해심데이~.' 전국체육대회가 1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7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대구광역시 선수단이 다른 시·도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대구 | 연합뉴스

체조샷별 성지혜, 달구벌 ★ 품다

전국체전 7일간 열전 마침표

5관왕 여고생 성지혜 MVP 등극
막강 경기도 11년 연속 종합우승
개최지 대구는 서울 제치고 2위에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17일 막을 내렸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대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선 경기도가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최우수선수(MVP)로는 기계체조 여자 고등부에서 5관왕을 차지한 성지혜(대구체고)가 선정됐다.

'맘·몸·뚝 달구벌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2만 4000여명의 선수단이 45개 종목(시범 3개

포함)에서 함께 기량을 겨뤘다. 종합우승을 거머쥔 경기도에 이어 안방에서 대회를 치른 대구가 역대 최고 성적인 2위에 올랐다. 서울은 3위.

전국체전에 참여한 선수들은 1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미래의 스포츠'를 주제로 열린 폐회식에서 내년 인천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내년 전국체전은 2014인 천안시안계읍을 앞두고 최종 여행연습의 성격으로 치러진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일주일간 힘껏 뛰고 달린 여러분의 노력과 힘이 한국체육의 든든한 기반이며 저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김범일 대구시장으로부터 대회기를 넘겨받아 김진영 인천시 정부부시장에게 전달했다.

MVP 성지혜는 여자 기계체조 유망주로 전국체전에 처음 출전해 최고의 별이 됐다. 개최지 대구 대표로 출전한 성지혜는 15일

여고부 개인종합과 단체종합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16일 종목별 결승에서 마루, 도마, 이단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5관왕에 등극했다. 2009년부터 태릉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성지혜는 2012런던올림픽에는 한국여자대표팀이 단체인 출전권 확보에 실패해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잠재력이 뛰어나 더 성장하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등 국제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재목으로 꼽힌다. 성지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올림픽에 갈 수 있다면 결승전을 목표로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용산중 체육관에서 열린 복싱 남자 일반부 라이트플라이급 결승에선 런던올림픽 16강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던 신종훈(인천시청)이 기효정(보은군청)을 13-4 판정으로 꺾고 금메달을 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상무, 경희대 꺾고 전국체전 男농구 우승
상무(국군체육부대)가 17일 대구 상원과 체육관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농구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대학 최강 경희대를 84-66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상무는 33점 9리바운드를 기록한 기승호와 지난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MVP(최우수선수) 윤호영(8점·11리바운드)을 앞세워 초반부터 경희대를 압도하며 대승을 거뒀다. 경희대에선

센터 김종규(16점·10리바운드)가 분전했지만 상무의 저력을 당할 수 없었다.

전국체전 女핸들볼 SK, 창단 첫 우승

SK 수가글라이더즈가 17일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핸드볼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삼척시청을 24-23으로 누르고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전반을 10-13으로 뒤진 SK는 권근혜(7골), 김정심

(4골)의 활약을 앞세워 후반 역전에 성공했다. 남자 일반부 결승에선 두산이 인천도시개발공사를 21-19로 꺾고 우승했다.

손연재·체조협회, 초청대회 참가 갈등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이탈리아 초청대회 참가를 두고 대한체조협회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손연재는 17일 이탈리아 초청대회인 '세리에 A'에 선수 등록을

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이탈리아체조협회로부터 당초 제공하기로 한 항공권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탈리아 체조협회는 이메일을 통해 '대한체조협회로부터 손연재 선수가 오늘 출국하지 못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 항공권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체조협회 측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꾸노온풍기 반값”



초절전 최신헤 6만 9000원 오늘 50대 한정판매!

풍년압력솔로 유명한 (주)PN풍년에서 초절전형 '꾸노온풍기'를 출시하였다. 전기절약 회로를 기본 장착한 절전형이지만 강력한 온풍을 뿜어내는 '꾸노온풍기'를 홍보차원에서 50대 한정 특가판매에 들어갔다.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예열이 필요없고 켜는 순간 온풍이 작동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안전을 위해 3중 안전장치를 탑재하였고 2단계 온도조절 및 풍속조절이 가능한 최신 기종이다. 특히 저소음이면서 강한 온풍효과와 유럽형의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부담없는 큐빅형 온풍기이다. 사이즈도 18X18X18.8cm로 적당하여 좋은 평가가 앞서고 있다.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과열자동제크시스템과 작동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절전 시스템, 제품이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3중 안전시스템으로 아이들의 난방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전기하더라도 열이 일방향으로 전달되지만 '꾸노온풍기'는 빠른 시간 내에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기판난로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난방할 수 있고 공기 오염이 없어 환경걱정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가정, 사무실, 오피스텔, 가게에서 공간차지가 적은 '꾸노온풍기'가 적당하다. 소비전력(750~1,500W)이 적어 경제적인 열원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출시기념으로 반값에 50명 선착순 판매하며 전화로 주문하면 무료배송해준다.

www.sunsea.kr



전기요금 산출(일반용 갑) 누진세 미적용
77.9원x0.75kwx8시간= 약 467원(1단)/77.9원x1.5kwx8시간= 약 934원(2단)

구입문의 무료전화: 1644-2464 입금계좌: 농협 170037-56-158874 김형준
통신판매 서울관악0029호 번안세 E-mail: kakaos4@naver.com

고품격 한독 24K 금장시계

오늘 반값 3만9900원(100개 한정)

어느 곳에서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한독 24K 금장시계! 빛살무늬 문자판에 라인스톤으로 장식, 사파이어 글라스에 낚시 돛보 기판으로 시각성을 더하였으며 다이아몬드 커링 특수베젤에 24K 특수 도금으로 케이스 및 밴드는 프리미엄 금도금으로 마감하여 품격을 더했으며 (롬바는 부분 도금) 스텐 재질로 연봉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반영구적이다.

30m 물에 들어가도 완벽한 방수가 되며 수입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더욱 높였으며 3년무상 A/S, 1년 내에 불량발생시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

가격은 할인된 가격 3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롬바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며 충분히 인하여 택배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택배비 선불시 42,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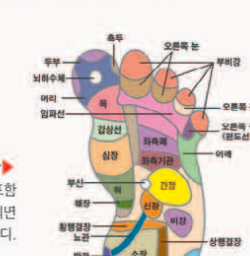
한독 24K Golden Watch Combi
제품의 색상은 인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디자인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케이스, 밴드, 스트랩은 스텐 사용
● 24K 금 특수 도금
● MADE IN JAPAN 수입 무브먼트
● 22도 시계(로마자) 금스톤(로마자) 조합
● 방수 방수방수
● 방수 방수방수
● 시계(로마자) 스텐 12개 약 11개
● 조합(로마자) 스텐 12개 약 11개
● 3년 무상 A/S, 1년 내 불량발생시 새제품으로 교환

구입문의 무료전화: 080-003-1515

입금계좌: 농협 356-0269-5761-53 김영희

쥐나고, 통통붓고, 피곤하고 지친 발

수면 중에 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발이 차가워 걱정되는 분.. 바르면 뭉친 발이 풀려 편안해지고, 개운하게 잠도 잘자요!



발은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을 지니고 있어 발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하고 생활이 힘들다

216개의 뼈로 이루어진 발은 한평생의 크기에 우리 체중보다 훨씬 큰 무게를 견뎌야 하는 막중한 수고를 하고 있으나 신체부분 중에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신발이 나 구두에 의해 발은 혹사당하여 일찍이 어서 통풍부터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이거나 심지어는 뼈에 이상이 와서 발이 변형되기까지 한다. 발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발크림이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화제인데 바로 GU+ (지우 플러스)라는 제품이다. GU+ (지우 플러스) 발크림은 (주)하나코스 중앙연구소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의학을 기본으로 발에 있는 반사점(반사구의 자극을 도와 혈행을 원활하게 해주어 차가운 발, 붓종 붓는 발, 저리고 쥐나는 발, 심하게 갈라지는 발, 스타킹 코가 잘나가는 발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로 재탄생시켜준다. 발크림이지만 손에도 사용하면 차가운



구입문의 무료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2-0447-8053-83 김은혜
통신판매 서울0029호 번안세 E-mail: kakaos4@naver.com